

■ 語文論文

接頭辭를 이용한 韓國語 語彙 教育 연구

— 教育用 接頭辭 目錄과 教授·學習 전략을 主로 하여 —

趙 昌 圭

(圓光大 講義教授)

要約 및 抄錄

접두사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가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先行 研究들에서는 國語辭典에 등재된 接頭辭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용 접두사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국어사전에는 當代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多數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방법에 의한 교육용 접두사 목록은 信賴性이 약하다. 따라서, 本稿는 이전의 방법들과는 달리 現代國語 말뭉치의 頻度 調査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정한 157개의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頻度數, 分布, 派生語數, 意味 頻度, 慣用表現의 존재 여부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접두사를 이용한 教授·學習 戰略으로는 단어구조를 이용한 교수·학습 전략, 새 말 만들기, 반복 학습, 자기 점검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 핵심어 : 접두사, 接頭辭 目錄, 빈도, 분포, 派生語數, 활용도, 語彙學習戰略

I. 序 言

接頭辭와 接尾辭는 單語形成에 참여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같다. 그러나 접두사는 접미사와는 달리 語基의 統辭範疇을 바꾸지는 못하고(일부의 접두사는 어기의 통사범주를 바꾸기도 한다), 어기에 意味만을 더하기 때문에 形態論의인 기능보다는 語彙論 혹은 意味論의 기능이 더 강하다. 최근 (韓 國語教育 分野에서 접두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접두사의

이런 意味 添加 機能이 어휘교육과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國語教育이나 韓國語教育에서 접두사를 이용한 語彙教育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教育用 接頭辭 目錄을 選定 해야 한다. 접두사 목록을 선정하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그럴 듯한 방법은 國語辭典에 標題語로 登載된 접두사 중에서 파생된 어휘가 많은 접두사 목록을 提示하고 그것을 교육용 접두사 목록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選定한 접두사 목록은 教育用 접두사 목록으로는 信賴性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전에 登載된 어휘 중 상당수는 幽靈語에 해당하며, 當代人인들이 사용하는 語彙는 사전에 등재된 어휘의 10 ~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수는 專門語를 제외하면 5萬語 内外 정도이다. 이런 사실은 말뭉치를 대상으로 빈도 조사를 한 결과들을 참고하면 쉽게 확인된다.¹⁾ 따라서 국어사전의 標題語를 대상으로 선정한 접두사 목록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데, 하나는 접두사의 사용 빈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該當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單語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興否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용 접두사 목록에는 적어도 네 가지 정보가 담겨야 한다. 접두사의 使用 頻度, 分布, 파생된 단어의 數, 앞의 세 가지 정보를 고려한 활용도가 그것이다. 이런 정보들이 담긴 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런 목록은 相對的으로 중요한 접두사와 그렇지 않은 접두사에 대한 정보를 教師와 學習者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학습의 優先順位를 정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어떤 접두사에 집중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既存의 접두사 목록은 이런 기능을 담당하지 못했다. 設或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한 접두사 목록이라 하더라도 빈도만을 고려한 平面的인 것이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는 現代國語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中心으로 어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現代國語를 대상으로 한 均衡 말뭉치에서 가려뽑은 접두사라야 한다.

本稿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韓國語 教育用 接頭辭 目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筆者는 먼저 현대국어 약 150만 語

1) 문영호 외(1994)는 약 1 백만 어절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빈도 조사를 한 결과 개별어휘가 39,983개(조사 포함)였으며, 김홍규·강범모(2000)은 약 150 만 어절을 조사한 결과 개별어휘가 47,017개였다.

節의 均衡 말뭉치를 對象으로 頻度調査를 한 조남호 外(2002)를 이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파생어의 使用頻度數, 파생어가 출현하는 文獻의 數, 該當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數를 同時에 고려한 活用度를 계산하여 이에 따른 교육용 접두사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는 意味頻度도 함께 제시하고, 관용표현(속담, 관용구, 연어, 상투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의 個數도 제시함으로써 교육용 접두사 목록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本稿의 두 번째 목적은 접두사를 이용한 어휘교육의 敎授·學習 戰略을 소개하는 데에 있다.

II. 教育用 接頭辭 目錄

1. 접두사 교육의 意義

어휘교육에서 접두사 교육의 의의는 접두사의 형태론적·의미론적 기능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첫째, 복합어에서 접두사는 意味論的 辨別 機能을 한다. 예컨대, ‘덜-셈’에서 접두사 ‘덜-’은 어기 ‘셈’의 의미를 제한하고 하위명세 함으로써 ‘뽕셈, 나눗셈’과 변별해 준다. 즉, ‘덜셈’은 ‘셈’이면서 ‘더히는 것이기 때문에, ‘덜셈’이 지시하는 것은 ‘셈’이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基本的 存在 類型이며, ‘덜-’의 효과는 ‘셈’의 適用可能性을 제한한다.²⁾ 둘째,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는 單語家族 word-family를 형성하여 의미가 서로 연관된다. 예컨대, ‘덜셈’은 ‘덜니, 덜문, 덜칠’과 意味가 서로 연관된다. 즉, 접두사는 意味 辨別 機能과 동시에 파생어들 사이를 하나의 의미를 토대로 연결시킨다. 接頭派生語들은 유사한 構造의 다른 단어들과 형태론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의미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意味網에 속한다. 그러므로 접두사의 학습은 다수의 어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이것은 어휘학습의 效率性을 증대한다.

心理的 語彙辭典 mental lexicon 에 파생어는 분석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2) 이런 결합양식은 상호작용적 결합 양식으로 내심적결합의 일종인 부울 결합 Boolean combination 이다(Cruse, 2000:126~127). 덜셈은 ‘셈’을 일방적으로 함의한다.

있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화자들은 필요한 경우 단어를 분해할 수 있다(Aitchison, 1987:190).³⁾ 단어를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는 人間の 이런 능력 때문에, 話者は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聽者は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유사한 形態素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Aitchison, 1987:258~259). 즉, 기존 단어를 構成成分으로 분석하고, 단어의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言語能力이다. 접두사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이런 언어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습자들이 能動的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들이 새로운 單語를 접했을 때, 접두사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基本資料를 제공할 것이다.

本稿의 分析에 의하면 접두사에 의해 생성된 단어는 전체 어휘의 4.2%를 차지하고, 하나의 접두사는 평균 12.7개의 파생어 또는 합성어와 관련되어 있다(본고 II.4절 참조). 따라서 하나의 접두사를 학습하면 의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10여 개의 파생어에 대한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접두사 교육이 적은 노력으로 비교적 큰 效果를 얻을 수 있으며, 學習者의 語彙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휘 교육 방법임을 알게 해준다.

2. 先行 研究 檢討

접두사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국어학적 관점과 韓國語教育의 관점 둘로 나누어 본고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한 부류는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가 타당한 기준 위에서 설정된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는 방면에서 시작하여 그에 의한 단어형성의 질서를 찾고 형태 음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이어져 갔다(李敬雨, 1990:199). 구체적인 연구로는 김계곤(1968a, b)을 필두로 하여, 일련의 석사논문들이 여기에 속한다(성환갑, 1972; 안종애, 1983; 강돈목, 1984; 김순임, 1987; 이

3) 派生語가 心理的 辭典에 저장될 때, 어기와 접사로 분리되어 저장된다는 主張과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저장된다는 주장에 대한 論議는 Aitchison (1987:173~190) 참조

재홍, 1992; 임시연, 1997; 박형우, 2004 등). 국어학적 관점에서 접두사 연구의 또 한 部類는 접두사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접두사의 意味 擴大와 變化 그리고 接頭辭 間의 意味 聯關 關係 등을 論했다(정동환, 1984; 김덕신, 2000; 변영수, 2002; 이양혜, 2004). 그러다 최근에는 형태변화와 접두사화의 관계나 個別 語彙의 접두사화 과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김덕신, 2003; 2004). 이런 業績들은 모두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접두사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유어 접두사로 研究 範圍를 제한하고 있다.⁴⁾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를 대상으로, 접두사의 妥當性을 檢討하여 제시한 접두사 목록이 바로 教育用 接頭辭 目錄인 수는 없다. 이런 목록들을 통해 우리는 국어 접두사를 鳥瞰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접두사가 教育的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 접두사가 실제로 現代國語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以下 『辭典』이라 함)을 기준으로 할 때, 語種別 표제어 比率은 ‘고유어가 25.2%, ‘한자어’가 57.3%, ‘한자어+고유어’가 8.3%에 이른다(이운영, 2002:50~60). 즉, 국어 語彙의 약 60% 정도가 漢字語 인데 고유어 접두사만을 對象으로 한 研究들은 국어 접두사를 다 포함하지 못한 問題點이 있다.

韓國語教育의 觀點에서 접두사에 대한 研究는 어휘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認識이 확산되면서 나타났다. 접두사는 依存形態이기는 하지만 접미사와 달리 語基에 의미를 더하는 機能이 있기 때문에 접두사에 대한 교육은 學習者의 語彙力 伸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접두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권순희(1999)는 한국어교육에서 接頭辭와 接尾辭의 語源을 교육함으로써 語彙力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고유어 접두사와 접미사의 語源과 뜻풀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教授·學習方法으로는 探究學習을 제안하였다. 접두사 목록은 성환갑(1972)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정은(2003)은 韓國語 教育機關 다섯 곳의 교재를 분석하여 각 教材에서 사용된 한자어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를 단순

4) 김계곤(1968a, b)는 小數의 접두사도 다루고 있다. 강돈목(1984)는 한자어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 임시연(1997)은 한자어 접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시하고 국어사전(금성출판사)에 登載된 접두사와 比較하였다. 教育 方案과 教育用 接辭 選定을 위한 基準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교재가 會話 中心으로 되어 있고,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재를 분석한 것은 의의 있는 作業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가 국어의 다양한 使用例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학습하는 교재의 접두사 목록을 韓國語 語彙教育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고, 제시한 접두사도 단순히 목록만을 나열하여서 教育적 意義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서희정(2006)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접두사를 學習者 水準에 맞게 等級化하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다. 먼저 접두사 목록을 제시한 17편의 論文과 『辭典』을 참조하여 총 132개의 고유어 접두사 중 韓國語教育에 적합한 접두사 60개를 선정하고 이것을 다시 韓國語教育機關 다섯 곳의 한국어교재와 한국어학습자용 어휘 선정 결과(국립국어원, 2003)⁵⁾ 그리고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 수록된 接頭派生語를 참조하여 初級用 4개, 中級用 24개, 高級用 32개의 접두사로 等級化한 다음, 그것들을 意味別로 분류하여 국립국어원(2003)과 김광해(2003)에서 해당 파생어를 찾아 나열하고 있다. 이 業績은 교육용 접두사 목록을 선정하고 그것을 등급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접두사가 고유어로 限定되어 있고, 접두사를 선정하는 基準이 '한국어교육에 적합한'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국어사전에 등재된 접두사를 대상으로 한 研究物의 접두사 목록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限界를 갖는다. 그리고 각 접두사의 사용 빈도나 분포 등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3. 接頭辭 選定 基準

접두사와 접미사는 파생접사로서 새로운 單語를 파생하는 데에 참여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差異가 있다. 먼저, 語基를 중심으로 붙는 위치가 다르다.⁶⁾

5) 국립국어원(2003)은 조남호 외(2002)의 빈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965개의 한국어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그것을 1단계 98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로 등급화하였다.

6) 유창돈(1975:105)은 語基를 중심으로 앞뒤에 붙는 것을 각각 접두사와 접미사로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접사의 性質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의라고 하면서 접두사와 접미사는 同一線上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접두사는 形態論的 主要部와 意味論的 主要部가 모두 될 수 없지만, 접미사는 형태론적 주요부가 된다(조창규, 1991:181).⁷⁾ 마지막으로, 접두사는 合成語에서 先行語辭의 虛辭化에 의해 형성되었고(유창돈, 1975: 105), 語基에 意味만을 더한다(소수의 접두사는 語基의 品詞를 바꾸기도 한다). 이에 반해 接尾辭는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의해 발달된 形態論的 作用으로 語基에 의미를 더할 뿐 아니라 그것의 範疇 變化도 가져온다. 添加語에 속하는 국어에서 다양한 접미사의 發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접두사는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生産的이지 못하다. 다만, 일부 접두사 특히 한자어 접두사는 生産的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基本 認識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접두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1)과 같다. 이 기준은 先行 研究들에서 제시한 기준과 大同小異하며, 고유어 접두사와 한자어 접두사에 모두 同一하게 적용된다.

(1) 접두사 선정 기준

- ① 複合語 'X1+X2'의 구조에서 'X2'가 자립할 수 있는 단어이면서, 全體意味가 X2의 의미와 有緣性을 갖고, X1이 의미를 더하는 형식이라면 X1은 접두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X1은 어떤 경우에도 自立的으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X2에 의미를 더하는 형식의 결합형으로만 출현하면, X1은 접두사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X1이 문헌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된 예(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가 있는 경우에는, X1이 분명한 의미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미변화가 있다면, 접두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한 단어 혹은 그것에서 派生된 단어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接頭辭가 아니다. 접두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最小限 그것에 의해 파생된 단어가 2個以上 확인되어야 한다.(지-새다, 지새우다; 데릴-사위, 시르-죽다)
- ④ X1이 古語로 通時的 觀點에서는 분석되지만, 共時的으로 獨自的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X1은 접두사다. 다만, ③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분석하지 않는다(낭떠러지).

또 접미사는 순전히 形態論的 대상임에 반해 접두사는 순전히 語彙論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7) 주요부 head에 대한 개념은 Zwicky(1985) 참조.

- ⑤ 의미의 有緣性을 가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음운론적 變異나, 표기상의 형태 변이를 보이는 X1은 하나의 접두사다(수-~숫-).
- ⑥ X1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더라도 自立的 쓰임이 없으면 접두사로 분류한다.
- ⑦ 共時的으로 분석할 수 없는 형태는 通時的으로 說明이 되더라도 分析하지 않고, 한 접두사의 形態論的 變異 形態로 처리한다(찰-뱌-찰-쌀-, 휘-날리다 : 휩-쓸다)

4. 教育用 接頭辭 目錄

접두사 선정 기준 (1)을 적용하여 접두사를 선정한다. 資料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를 선정할 목적으로 現代國語 頻度調査를 한 조남호 외(2002)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약 150萬 語節(정확히는 1,531,966 語節, 資料 種數-176種)의 현대국어 均衡 말뭉치를 대상으로 頻度調査를 한 結果物이다.⁸⁾ 個別語彙數는 58,437개이다. 이 자료에는 빈도 외에도 그 단어가 어느 種類의 文獻에 출현하는지의 정보와 몇 개의 文獻에 출현했는지에 대한 情報가 記錄되어 있다.

本稿의 作業 節次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도와 출처 정보(表 2)에서는 分布로 表記)가 붙어 있는 58,437개의 단어에서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以下 一次派生語라 함)와 一次派生語를 어기로 하여 다시 파생되거나(以下 二次派生語라 함), 一次派生語가 合成語의 앞 성분이 된 것들을 골랐다. 이렇게 고른 단어가 2,459個이었고 總 頻度가 16,263번이었다. 이것을 말뭉치 전체와 비교하면, 個別語彙 對比 4.2%($\cong 2,459 \div 58,437 \times 100$)이고, 全體頻度 對比 1.1%($\cong 16,263 \div 1,484,463 \times 100$)에 해당한다. 그리고 2,459개의 단어를 분석하여 얻은 접두사의 수는 194개이었다. 194개의 접두사가 2,459개의 개별 어휘와 형태 의미 면에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접두사 하나는 평균 12.7개의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

8) 조남호 외(2002:3)에서는 총 어절 수가 1,531,966 語節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總頻度數는 1,484,463개이었다.

‘빈도’ 계산은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의 頻度를 더하여 얻었다. 여기에는 一次派生語뿐만 아니라 二次派生語 또는 一次派生語가 어기로 참여하는 合成語까지도 포함되었다.⁹⁾ 그러나 ‘파생어수’ 계산은 一次派生語는 모두 포함하고, 두 개 이상의 二次派生語는 하나로 계산하였으며, 일차파생어와 이것이 語基로 참여하는 合成語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합성어를 파생어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산한 派生語數는 1,989개이었다. ‘분포’는 조남호 외(2002)에서 ‘개수’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출전 문헌 總數다. 이상의 설명을 표로 보이면 [表 1]과 같다.

[表 1] ‘빈도, 분포, 파생어 수의 예시

단어	풋고추	풋고추조림	풋김치	풋내	풋내기	풋마늘잎	풋사랑	풋콩	계
빈도	20	1	1	1	3	1	1	12	40
분포	1	1	1	1	3	1	1	1	10
접두사	풋-2 빈도:40, 분포:10, 파생어 수:7								

그런 다음, 『辭典』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된 慣用表現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관용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 個數를 적었다. 이때의 관용표현은 해당 단어가 관용표현의 첫머리에 登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접두사가 두 개 이상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意味頻度를 조사하여 明記 하였다. 접두사의 意味 頻度는 접두사를 교육할 때, 먼저 교육해야 할 의미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전의 의미 기술에서도 필요한 정보다. ‘의미에서 括弧 數字와 접두사에 붙어 있는 숫자는 모두 『辭典』과 일치시켰다.

- 9) ‘분포와 파생어수’와의 상관계수는 0.77, ‘빈도와 분포’의 상관계수는 0.75로 비교적 강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와 파생어수’와의 相關係數는 0.37로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약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다. 빈도와 파생어수와의 선형관계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 것은 일부 파생어가 고빈도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빈도가 높으면 파생어수도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파생어는 ‘나오다’(보조동사 제외)로 2,435개의 빈도에 164개의 出處를 보였다. 다음은 ‘나가다(977/138), 대부분(501/106), 제일04(第一04, 295/98)’의 順序였다. 그러나 가장 낮은 빈도는 1개이다.

마지막으로, '活用度'는 趙昌圭(2003:158~160)에서 頻度와 分布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으로 統計學的인 根據를 갖지는 않으나, 頻度에만 의지하여 어휘의 활용도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筆者의 選好度나 內容에 따라 特定 語彙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頻度數는 높아지지만 그것이 꼭 널리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반드시 활용도도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활용도를 산출하기 위해 本稿에서는 네 가지 作業을 하였다. 먼저 $\text{'LOG}(2 \times \text{빈도}) \times ((\text{분포} + \text{파생어수}) \div 2) \times 0.103$ 라는 數式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값을 얻었다. 다음으로, $\text{'LOG}(2 \times \text{분포}) \times \text{파생어수} \div 3.81$ 이라는 數式을 사용하여 두 번째 값을 얻었다. 그런 다음, $\text{'LOG}(2 \times \text{빈도}) \times \text{파생어수} \div 4.37$ 라는 수식으로 세 번째 값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세 값의 平均을 계산한 것이 [표 2]에서 제시한 활용도 값이다. 이 數式은 頻度 혹은 分布의 자연 로그값에 '분포+파생어수'의 평균값 또는 파생어수를 곱한 것인데, 2를 곱한 것은 頻度數나 分布數가 1인 것들이 0으로 계산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0.103, 3.81, 4.37과 같은 數値는 최고의 활용도를 보이는 접두사의 活用度를 100에 가깝게 하기 위한 變數다.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한 理由는 빈도와 분포, 파생어수를 모두 計算에 넣기 위함이었다.

말뭉치에서 얻은 전체 접두사 194개 중 頻度 또는 分布가 한 번인 것들 37개를 제외한 것이 [表 2]에 제시된 157개의 接頭辭이다.¹⁰⁾ 빈도 또는 분포가 한 번인 접두사들을 [表 2]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들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表 2]에서 '김&강'은 김홍규·강범모(2000:238)에서 제시한 접두사 목록의 빈도순 번호이다.¹¹⁾

10) [表 2]에서 '순위' 옆에 표시된 '*'는 『辭典』에서 접두사로 分類되지 않은 것들이다. 접두사 뒤에 붙은 번호는 『辭典』의 동음이의어 어개번호다.

11) 김홍규·강범모(2000:238)는 약 150만 어절의 말뭉치를 분석하여 체언에 붙는 접두사 40개만을 제시하였다. 이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기초자료 구축 2차년도 결과물이고, 조남호 외(2002)가 이용한 말뭉치도 같은 것인데, 다만, 조남호 외(2002)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이라는 목적에 따라 교과서와 한국어교재 등이 더 더해졌다. 김홍규·강범모(2000:238)에서 제시한 접두사 중, '9 총(總)-, 11 전(全)-, 14 소(小)-, 26 주(主)-, 30 양(兩), 38 첫' 여섯 개는 [표 2]에 포함되지 않았다.

접두사의 의미가 포함된 전체 접두사 목록(194개)은 筆者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겠다.

[表 2] 接頭辭 目錄(活用度順)

순위	접두사	어기 품사	김&강	빈도	분포	파생 어수	관 용	활용 도	의미
1	대(大)-17	명	3	1149	447	129		99.6	
2	비(非)-32	명	5	371	276	111		70.0	
3	재(再)-17	명	6	512	317	101		69.6	
4	무(無)-11	명	4	709	412	79		65.7	
5	신(新)-15	명	8	410	179	84		50.6	
6	불(不)-15	명	2	604	352	48		44.4	
7*	나(아)-	동		3776	456	8	11	35.3	
8	되-6	동		475	326	33	1	34.0	(1)8, (2)12, (3)13
9	한-13	명	13	363	236	37	11	30.1	(1)5, (2)9, (3)23
10	반(反)-15	명	7	209	123	50		28.2	
11	초(超)-22	명	12	155	88	51		25.7	
12	맞-1	동.명		237	172	36	1	24.9	(1)명-16, (2)동-19
13	고(高)-28	명	15	149	109	46		24.7	
14	부(副)-22	명		304	120	40		24.5	(1)33, (2)7
15	참-11	명		374	106	30	33	19.4	(1)14, (2)16
16	여(女)-26	명		230	109	31		19.0	
17	생(生)-6	명	20	127	64	39	2	18.6	(1)13, (2)2, (3)17, (5)6, (6)1
18	헛-2	명.동	17	115	89	34	1	17.8	(1)26, (2)8, 헛/2
19	최(最)-3	명	18	105	80	33		16.7	
20	휘-9	동.형		241	170	17		15.9	(1)동-15, (2)형-2
21	뒤-3	동		218	170	11		12.9	(1)9, (2)2
22	저(低)-11	명	19	92	56	27		12.7	
23	부(不)-20	명	10	134	93	17		11.1	
24*	내-	동		163	119	13	1	10.9	
25	수(數)-35	수.명		171	126	11		10.4	
26	시(媳)-27	명		232	129	9		10.0	
27	덜-4	명.동		141	81	14		9.3	
28	미(未)-17	명	23	52	38	22		9.1	
29*	폐(廢)-	명		66	28	22		8.7	
30	양(洋)-27	명		192	45	15		8.2	
31	급(急)-5	명		51	47	18		8.1	(1)14, (2)4

32	쇠-6	명		117	25	19	10	8.0	
33	제(第)-21	수	1	338	130	2		7.3	
34	중(重)-10	명		70	47	16		7.7	(1)14, (2)2
35	개-12	명		51	36	18	7	7.5	(1)10, (2)5, (3)5
36	통-18	명.동		73	46	15		7.3	(1)14, (2)1
37	들이-3	동		96	69	10		6.7	
38	피(被)-13	명	16	74	31	16		6.9	
39	치-15	동		91	71	9		6.4	
40	친(親)-3	명	31	32	29	17		6.4	(1)11, (2)3, (3)3
41	원(元/原)-16	명		50	35	14		6.1	
42	구(舊)-24	명	22	61	31	12		5.3	
43	짓-4	동		67	56	8		5.1	(1)8
44	탈(脫)-3	명	27	46	26	13		5.2	
45	외(外)-8	명		80	36	10	6	5.0	(1)10
46	준(準)-7	명	28	42	20	14		5.1	
47	암-10	명		63	26	12		5.1	(1) 10, (2)2
48	가(假)-15	명	21	29	19	14		4.8	
49	장(長)-40	명		68	51	7		4.5	
50	맨-5	명	24	37	30	11	4	4.6	
51	다(多)-9	명		27	22	13		4.6	
52	막-8	명.동		103	60	5	5	4.4	
53	역(逆)-15	명		26	22	13		4.6	
54	외-6	명		37	28	11	3	4.5	(1)9, (2)2
55	명(名)-11	명		20	17	14		4.4	
56*	암(暗)-	명		42	18	12		4.4	(1)10, (2)2
57	웃-	명		62	35	8	1	4.1	웃-
58	노(老)-17	명	32	39	24	10	2	4.0	
59	잡(雜)-3	명		28	20	11		3.9	(1)10, (2)1
60	들-8	동		50	39	7		3.8	
61	시-26	형		59	36	7		3.8	
62*	정(正)-	명		86	46	5		3.7	(1)2, (2)1, (3)2
63	새-14	형		49	43	6	2	3.6	
64	수-32	명		44	16	10	1	3.7	(1)10
65	재(在)-18	명		121	38	5		3.5	
66	군-10	명		27	24	9	7	3.5	(1)8, (2)1
67	왕(王)-6	명	37	19	14	11	3	3.4	(1)7, (2)3, (3)1
68	선(先)-18	명		20	15	10		3.2	(1)9, (2)1
69*	식(食)-	명		52	23	7		3.1	
70	엿-3	동		81	57	2		2.9	

71*	직(直)-	명		48	22	7		3.1	(1)2, (2)5
72	범(汎)-8	명	34	25	20	8		3.0	
73	드-2	동.형		41	35	5		2.9	
74*	부르-	동		39	32	5		2.7	
75	엇-3	동.형		39	32	5		2.7	(1)3, (2)1, (3)1
76	말-	명	29	27	21	7	1	2.8	
77	몰(沒)-11	명		24	19	7		2.6	
78*	떠-	동		53	40	3		2.5	
79	찰-3	명		30	16	7	2	2.6	(1)6, (2)1
80	처-5	동		30	22	6		2.5	
81	냉(冷)-2	명		15	14	8		2.5	
82	막-7	동.명		26	21	6		2.4	(2)4, (3)2
83*	평(平)-	명		35	12	7		2.4	
84	알-2	명		25	19	6		2.3	(1)4, (3)2
85	꽃-2	명	35	40	10	7		2.4	(1)4, (2)3
86*	단(短)-	명		28	17	6		2.3	
87	과(過)-13	명	36	46	25	4		2.2	(1)4
88	연(連)-24	명		34	27	4		2.1	(1)3, (2)1
89	홀-2	명		11	10	8		2.1	
90	백(白)-10	명		18	10	7		2.1	
91	메-14	명.형		29	20	4		1.8	
92	강(强)-21	명		13	13	6		1.9	
93	빚-3	동.명		38	25	3		1.8	(1),(2),(3)-各1
94*	억-	동.형		35	30	2		1.6	
95	독(獨)-11	명		17	13	5	1	1.7	
96	대(對)-20	명		14	13	5		1.6	
97	연(軟)-23	명		13	8	6		1.6	(1)4, (3)2
98	줄-11	명		19	16	4	1	1.6	
99	본(本)-7	명		20	15	4		1.5	
100	홀-13	명		29	19	3		1.5	
101	주(駐)-33	명		38	16	3		1.4	
102*	똥-	명		10	9	5	1	1.4	
103	쪽-11	명		18	8	4		1.2	(1)3, (2)1
104	날-5	명	33	8	7	5	1	1.2	(1)3, (2)2
105	해-16	명		8	7	5		1.2	
106*	애-	명		19	13	3		1.2	
107	호(胡)-18	명		40	16	2		1.1	
108*	알-	형		27	18	2		1.1	
109	항(抗)-9	명		28	5	4		1.2	

110	연(延)-22	명		11	8	4		1.1	
111	담(淡)-15	명		6	6	5		1.1	
112*	이(異)-	명		19	10	3		1.1	
113	건(乾)-12	명		11	7	4		1.1	(1)4
114*	나-	동		15	11	3		1.0	
115	경(輕)-26	명		10	7	4		1.0	(1)3, (2)1
116	박-15	동		20	16	2		1.0	
117*	외동-	명		16	10	3		1.0	
118*	내(來)-	명		31	12	2		0.9	
119*	금(今)-	명		11	8	3	1	0.9	
120*	멧-	명		7	5	4		0.9	
121*	거머-	동		18	11	2		0.8	
122*	태(太)-	명		16	11	2		0.8	
123*	악	동		15	11	2		0.8	
124	강-20	명		9	7	3		0.8	(4)3
125*	모(母)-	명		11	6	3		0.8	
126*	밀(密)-	명		8	7	3		0.8	
127*	차(次)-	명		13	10	2		0.7	
128	돌-5	명		11	5	3		0.8	
129*	미(微)-	명		17	8	2		0.7	
130	진(眞)-34	명		6	6	3		0.7	
131	숫-3	명		10	4	3		0.7	(1)3
132*	부여-	동		10	8	2		0.6	
133	고(古)-27	명		5	5	3		0.6	
134*	증(曾)-	명		5	5	3		0.6	
135	환-14	명		9	7	2		0.6	(1)2
136*	당(唐)-	명		6	3	3		0.6	
137*	그러-	동		4	4	3		0.6	
138	맹(猛)-5	명		4	4	3		0.6	
139	진-32	명		4	4	3		0.6	
140*	건-	동		8	6	2		0.5	
141*	가랑-	명		7	6	2	7	0.5	
142	조(助)-26	명		9	5	2		0.5	
143*	끌-1	명		8	5	2		0.5	
144	짹-10	명		6	5	2		0.5	
145	민-5	명		3	3	3		0.5	(1)3
146	정(正)-34	명	25	3	3	3		0.5	
147	맹-4	명		5	4	2	3	0.4	
148	몰-10	명		4	4	2		0.4	(2)2
149	요(要)-19	명		4	4	2		0.4	

150	유(有)-21	명		4	4	2		0.4	
151*	좁-	명		5	2	2		0.3	
152	난(難)-11	명		3	3	2		0.3	
153	당(堂)-15	명		4	2	2		0.3	
154*	장(長)-	명		4	2	2		0.3	
155	호(好)-17	명		3	2	2		0.3	
156	공(空)-17	명		2	2	2		0.2	(2)1, (3)1
157*	종(從)-1	명		2	2	2		0.2	정-34 참조

[表 2]의 접두사 목록은 말뭉치에서 頻度만을 고려한 目錄이나 辭典에서 標題語를 對象으로 하여 分析한 目錄과는 差異를 보인다. 이 목록은 실제 사용된 현대국어의 자료를 대상으로 접두사를 抽出하고, 頻度, 分布, 派生語數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목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목록의 부분이 제공되어도 무방하다.

이제 김광해(2003:276)의 等級別 語彙量을 참조하여 접두사를 等級化해 보자. 한국어 교육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두사를 初級用, 中級用, 上級用으로 나누기로 한다.¹²⁾ 초급용 어휘는 基礎語彙로 약 2,000개 정도가 해당한다. 기초어휘는 性格上 高頻度語이고 대부분 單一語이며 單語形成에서 주로 어기로 참여한다. 그리고 초급과정에서는 기초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접두사 교육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접두파생어가 문맥 중에 있다면 그때그때 언급하는 정도로 족하다. 접두사를 이용한 어휘학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活用度 30 以上에 해당하는 약 10개 정도의 접두사를 教育用 目錄에 포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수효는 學習目標로 하는 접두사의 數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中級用은 累積 語彙數가 약 6,000개 정도인데,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語彙數 약 35,000개의 17%에 해당하며, 이 어휘들의 累積頻度率은 약 83%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接頭辭 教育은 강조되어야 한다. 중급부터는 語彙 生成 原理를 통해 語彙 擴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한재영 외, 2005:372).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頻度數가 전체 말뭉치 빈도의 약 1.1%에 해당하므로 中級課程에서는 약 60개 정도(누적 수

12) 고급과정은 접두사 목록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이 활용도가 낮은 것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교육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량 70개)의 접두사(활용도 3 이상)를 교육용 목록에 포함시키면 되겠다. 상급용 어휘는 누적어휘수가 약 15,000개이므로 [표 2]의 접두사 목록이 모두 학습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중급 과정에서는 특히 활용도가 높은 漢字語 接頭辭 교육에 힘써야 한다. 한자어 접두사를 교육하면서 그것의 한자까지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국인들의 경우 한자어든 고유어든 둘 다 外國語일 뿐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區分하여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고유어 단어를 학습하듯이, 즉 한자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도 한자어를 학습하는데, 이런 사정은 한자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초·중등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학습자나 국어교육에서는 漢字와 더불어 한자어 접두사를 교육하는 것이 더 效果的일 수 있다.

Ⅲ. 接頭辭를 이용한 教授·學習 방안

접두사는 語彙力을 擴張하고,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는 읽기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먼저 文脈에 의해 단어의 의미를 推測해 보고, 그것이 如意치 않을 때에는 單語의 構造를 살펴볼 것이며, 이때 모르는 단어가 接頭派生語라면 접두사에 대한 지식이 意味 把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단어구조를 이용한 語彙學習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나 外國人들에게 教授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念慮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單語를 分解하는 能力은 인간의 언어 능력의 一部이기 때문이다(Aitchison, 1987:258~259). 또한, 이상규·이준희(2004: 119~156)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3세경부터 合成法을 이용하여 새 말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며, 6세 때부터 接尾派生法을 이용한 새 말을 만들어 쓰고, 7세가 되면 接頭派生法을 이용한 새 말을 만들어 쓴다. 어린이들의 言語 發達에 대한 이런 報告는 母國語 話者들은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單語形成 規則을 內面化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韓國語를 배우는 外國人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2 혹은 제3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成人이고, 그들 또한 母國語의 單語構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단어구조를 이용한 어휘교육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方法으로 教授 活動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교수·학습 전략은 韓國語教育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具案하였지만, 국어교육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1. 單語構造를 이용한 教授·學習 전략

접두사를 이용한 語彙學習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知識은 단어를 보고 그것의 分析 與否를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기의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어휘력이 있어야 한다. 단어구조를 이용한 어휘학습의 節次는 4단계로 이뤄진다. 이 活動은 言語 理解 側面인 듣기,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학습자는 모르는 단어가 나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그것이 나뉠 수 있다면, '接頭辭-語基'의 구조인지 '語基-接尾辭'의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前者의 구조라면 나뉜 단어의 部分들의 의미를 결합하여 單語 全體 意味를 추측한다. 셋째, 추측한 의미를 文脈에 적용해 보아서 의미가 통한다면 그 推測은 옳을 것이며, 단어구조를 이용한 어휘 학습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넷째, 추측한 단어는 사전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한다. 단어의 부분을 이용한 추측은 문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접두사를 이용한 어휘 학습에서 教師는 학습자에게 頻度와 活用度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접두사 목록을 提供해 주어야 한다. 접두사 중에는 보다 有用한 접두사가 있기 때문에, 접두사의 優先順位에 대한 정보는 學習者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때 먼저 학습해야 할 접두사와 집중해야 할 접두사를 결정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제시한 목록 중 학습해야 할 접두사를 결정하고 效果的인 教授·學習 活動을 계획해야 한다. 활용도가 높은 접두사를 먼저 학습해야 하고, 탐구학습이나 단어카드를 이용한 학습이 유용해 보인다. 다른 教授·學習 戰略은 학습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形態나 意味가 유사한 접두사를 함께 가르치거나 學習하지 않는 戰略이다. 특히 학습 초기에는 接頭辭間 相互 干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Nation은 단어구조를 이용한 어휘학습과 관련하여, 단어구조를 이용한 어휘 학습은 文脈 推定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戰略이며(Nation, 1990:163), 학

습자들이 단어 구성 성분을 결합하여 複合語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複合語를 학습한 후에 그것을 구성 성분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Nation, 2001:274)고 하였다. 前者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는 전략은 문맥을 통한 意味推定을 먼저 해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단어구조를 이용한 의미 추정을 하라는 것으로 語彙學習戰略들 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後者는 파생어는 心理的 語彙辭典 mental lexicon 에 분석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다는 Aitchison(1987:190)의 見解와 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복합어를 학습하는 順序는 먼저 나누지 않은 全體로 학습을 하고, 나중에 복합어를 부분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사용할 戰略이나 學習의 順序에 대한 언급으로 단어구조를 이용한 語彙學習이 無益하다는 견해는 아니다.

2. 새 말 만들기

접두사를 이용하여 새 말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創造的인 活動으로 적극 勸奨하고 激勵해야 한다.¹³⁾ 필요에 의해 새 말을 만들거나, 社會의 發達로 새로운 概念이 필요할 때, 또는 外來 文物과 함께 들어온 사물에 새로운 名稱을 붙여야 할 때, 接辭와 語根을 이용하여 새 말을 만드는 일은 창조적인 精神活動이다.

새 말 만들기 활동은 單語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카드에는 접두사를 적고 다른 카드에는 語根을 적어서 서로 結合 가능한 단어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카드 한 장에 하나의 接頭辭 또는 하나의 語根을 적고, 접두사 카드 뒷면에는 의미와 파생어를 적는다. 어근 카드의 뒷면에는 단어의 基本的 意味와 用例를 적는다. 단어 카드가 작성되었으면, 접두사 카드와 어근 카드를 차례로 결합시키면서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檢討하는 활동이나 어근에 結合이 가능한 접두사를 찾도록 하는 活動이 이어진다. 김순임(1987:39~43)에서 가져온 [表 3]과 같은 예들은 새 말 만들기 활동에 유용하게 利用할 수 있다.

13) 이런 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활동이다.

〔표 3〕 새 말 만들기 활동 자료 예시

접두사 카드	어근 카드(단어 하나에 한 장의 카드)
개-	글씨, 웃음, 소리
꽃-	춤, 처녀, 색시, 신랑, 선생, 탁구
날-	벽돌, 칠, 밀, 강패, 사기꾼
참-	맹세, 약속, 우유
한-	기쁨, 행복, 소원
엇-	짜, 줄기, 쌓기, 박기
덧-	스타킹, 장갑, 스카프, 소매
군-	손님, 양념, 가락, 힘
헛-	다짐, 노력, 방문, 결심

새 말 만들기 活動은 단어카드를 이용하는 方法 外에도 한 단어를 파생어나 합성어로 바꿔보기, 事物의 어떤 特徵을 파생어나 합성어로 表現해 보기, 친구의 別名을 파생어나 합성어로 만들어 보기(조창규, 2006:145) 등이 더 있다. 이런 활동에 더하여 派生語나 合成語를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기, 동료가 만든 새 말의 허용 가능성 검토하기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새 말 만들기 활동을 통해 만든 새 말들은 반드시 교사와의 토의를 통해 용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두사는 그 결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3. 反復學習

어휘학습은 理解보다는 暗記를 통한 理解語彙나 使用語彙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反復學習을 통해 단어를 완전히 기억해야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기억해 내야 한다. 따라서 어휘 학습은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누적적인 과정이다. Ebbinghaus의 記憶과 忘却에 대한 연구는 學習 直後 반복 학습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의 속도가 느려지므로 반복학습과 반복학습 사이의 間隔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길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김필식·오만록, 2002:228~230). 그리고 Pimsleur의 研究 結果도 반복 학습의 간격은 반복의 횟수와 比例하여 반복 사이의 간격도 멀어져야 함을 보여준다(Nation, 2001:77). 이것은 지수함

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첫 번째 간격이 5초이면 다음 간격은 $5^2=25$ 초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 간격은 $5^3=125$ 초가 되어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 간격을 둔 反復은 긴 時間 동안의 長期的 記憶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반복의 回數에 대한 研究(Nation, 2001:298~299)는 약 7번 정도의 반복으로 어휘가 완전히 암기되었다고 한다.

반복 학습은 어휘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한 어휘를 수업 末尾에서 반드시 반복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반복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수업 계획에 反映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反復學習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적어도 7回 정도의 반복학습을 해야 하고, 반복의 間隔은 뒤로 갈수록 멀어져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4. 自己 點檢

자기 점검 활동은 自律學習의 중요한 활동이다. 어휘학습의 窮極的인 目的은 교실 밖에서 새로운 語彙를 만났을 때 학습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학습자 自身の 計劃에 따라 필요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길러주는 데에 있다. 따라서 自己 點檢 戰略은 自律學習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 서면, 얇이란 결과로서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事態 속에서 생겨나는 問題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解決策을 강구하며, 解決의 여부를 실천적으로 檢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包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배영주, 2005: 115).

자기점검 활동은 다음의 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친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기 학습 활동에 대한 反省的인 省察과 評價를 통해 자신의 학습이 갖는 問題點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의 原因과 過程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分析 結果는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 적극 반영하고, 자신이 앞으로 修行해야 할 학습 계획을 보다 발전적으로 세운다. 셋째, 학습활동을 한다. 넷째, 다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점검을 하고 아직 改善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수정된 계획을 세워서 學習活動을 한다. 이런 자기점검 활동은 학습의 모든 段階에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V. 結 語

本稿는 두 가지 目的을 가지고 出發하였다. 하나는 韓國語教育用 接頭辭 目錄을 提示하는 것이었다. 教育用 접두사 목록은 접두사의 빈도 외에 분포, 파생어수 등이 함께 고려되고 이런 情報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筆者가 利用한 자료는 약 150만 어절의 현대국어 말뭉치의 빈도를 조사한 조남호 外(2002)의 資料였다. 여기서 194 개의 접두사를 抽出하고 그 중 빈도나 분포가 한 번인 것들을 除外하고 얻은 157개의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接頭辭 目錄에는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頻度 分布, 派生語數 등의 정보와 의미 빈도, 慣用表現의 存在 與否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빈도, 분포, 파생어수를 동시에 고려한 활용도를 計算하여 活用度順으로 접두사를 배열하였다. 이 접두사 목록이 한국어 教師와 學習者 모두에게 유용하길 희망한다.

本稿의 두 번째 목적은 접두사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教授·學習 戰略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筆者는 단어구조를 이용한 교수·학습 전략, 새 말 만들기, 반복 학습, 자기 점검 등의 전략을 紹介하였다. 反復學習 戰略이나 自己點檢 戰略은 접두사 교육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 두 戰略은 모든 어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單語構造를 이용한 語彙學習이라는 일련의 과정 안에 이 두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 參 考 文 獻 ◇

- 강돈목(1984), 「한국어 접두사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0.
-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http://www.korean.go.kr/06_new/press/korean_view.jsp.
- 권순희(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지도 방안 연구-고유어 접사의 어원 및 뜻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pp.361~382.

- 김계곤(1968a), 「현대국어의 앞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김정한 선생 송수 기념 논문집』, 대화출판사, pp.41~71.
- _____(1968b),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 교대 논문집〉 3, 인천교육대학교, pp.57~89.
- 김광해(2003), 「국어교육용 어휘와 한국어교육용 어휘」,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p.276.
- 김덕신(2000), 「접두사화에 나타난 의미변화 연구-접두사 ‘개-, 뜻-, 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pp.567~584.
- _____(2003), 「형태변화와 접두사화의 관계 고찰」, 〈인문학연구〉 30-2,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p.41~64.
- _____(2004), 「“덧-”의 접두사화 고찰」,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pp.1~21.
- 김순임(1987), 「국어 접두사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8.
- 김정은(2003), 「한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22, 二重言語學會, pp.91~139.
- 김홍규·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238.
- 김필식·오만록(2002), 『현대교육학 개론』, 형설출판사, pp.228~230.
- 문영호 외(1994), 『조선어 빈도수 사전』, 한국문화사.
- 박형우(2004),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 28, 청람어문교육학회, pp.391~419.
-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원미사, p.115.
- 변영수(2002),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양상」, 〈한말연구〉 10, 한말연구학회, pp.43~81.
- 서희정(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두파생어에 대한 연구-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二重言語學會, pp.209~243.
- 成煥甲(1972), 「접두사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9.

- 安鍾愛(1983), 「現代 國語 接頭辭 研究 -특히 國語意味論의 인 面 을 中心 으 로-, 高麗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p.1 ~89.
-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삼우사, p.105.
- 李敬雨(1990), 「과생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199.
- 이상규·이준희(2004), 「아동의 단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창조적인 단어 구성」,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pp.119 ~156.
- 이양혜(2004), 「한국어 파생접사의 확대 의미 연구-의미 유사성을 가진 접두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pp.267 ~ 296.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pp.50 ~ 60.
- 李載鴻(1992), 「고유어 접두사 한계설정에 대한 고찰」,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 ~94
- 임시연(1997), 「국어 사전의 한자 접두사 처리에 대한 연구」, 울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 ~98.
- 鄭東煥(1984), 「현대 국어의 접두사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 ~68.
- 조남호 外(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CD-Rom, pp.21 ~ 802.
- 조창규(1991), 「국어 접두사 연구(Ⅱ)-16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법산 송순강 교수 화갑기념 어문논총』, pp.179 ~201.
- _____(2003), 「상징어의 어울림 정보와 활용-초등학생용 읽을거리의 계량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pp.149 ~179.
- _____(2006), 『국어어휘교육론』, 정음, p.145., pp.159 ~164.
- 한재영·박지영·현윤호·권순희·박기영·이선웅(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p.372.
- Aitchison, J.(1987), *Words in the Mind-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임지룡·윤희수 옮김 (1993), 『심리언어학: 머리속 어휘사전의 신비를 찾아서』, 경북대학교출판

부. pp.173 ~190., pp.252 ~261.

Cruse, D. A.(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임지룡·김동환 옮김 (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pp. 126~130.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p.163.

Nation, I. S.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p.77., p.274., pp.298 ~299.

Zwicky, A. M.(1985), Heads, *Journal of Linguistics*, 21-1, pp. 1~29.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Prefixes

—Focus on a List of Educational Prefix an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Jo, Chang-gyu

A knowledge of affixes and roots has two values for a learner of Korean: it can be used to help the learning of unfamiliar words by relating these words to known words or to known prefixes and suffixes, and it can be used as a way of checking whether an unfamiliar word has been successfully guessed from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o present a list of prefixes for learners of Korean and (2) to suggest strategies of prefixes teaching and learn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I present a list of prefixes which is based on the modern Korean corpus. And I select 157 Korean prefixes for learners from 2,459 words. The list contains frequency, distribution, number of derivative, idiomatic expressions, meaning frequency. The list indicates an ord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at will give the best return for learning effort.

And I suggest fou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using of word structure, making of new words, repetition learning, self-examination.

※ Key-words : prefix, a list of prefixes for learners of Korean, frequency, distribution, number of derivative, a practical use, vocabulary learning strategy